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8. 7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7/31~8/4)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예상치 하회한 미 6월 근원 PCE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완화와 위험선호 심리 회복된 측면 반영하며 환율 하락 출발. 이어 7월 시카고 제조업 PMI 개선과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긴축 경계감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7월 차이신 PMI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국내 수출 부진 영향 등에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피치의 미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분위기 속 상승 흐름 지속
- 후반, 미 민간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도 수급상 수출업체 네고물량 우위로 상단 제한된 양상. 이어 주 후반, 미 7월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 중국 경기부양책 이슈와 위안화 약세, 결제수요 유입 등에 1,300원대 회복하며 마감

## 달러/원 전망

-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18만7천명으로 예상치 20만명을 밑돌음에 따른 고용시장 둔화 해석 등의 영향 반영 등이 환율 하락의 주요 재료로 작용할 전망
- 반면, 전주 미 신용등급 강등 속에 이를 중시 차익실현 재료로 적용한 뉴욕증시 하락 가능성 및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등이 하단 제한할 전망
- 다만, 1,300원대 이상 가격에서의 고점 이식 달러 매도 니즈 확대 가능성 등이 미 고용관련 달러 약세와 함께 일부 원화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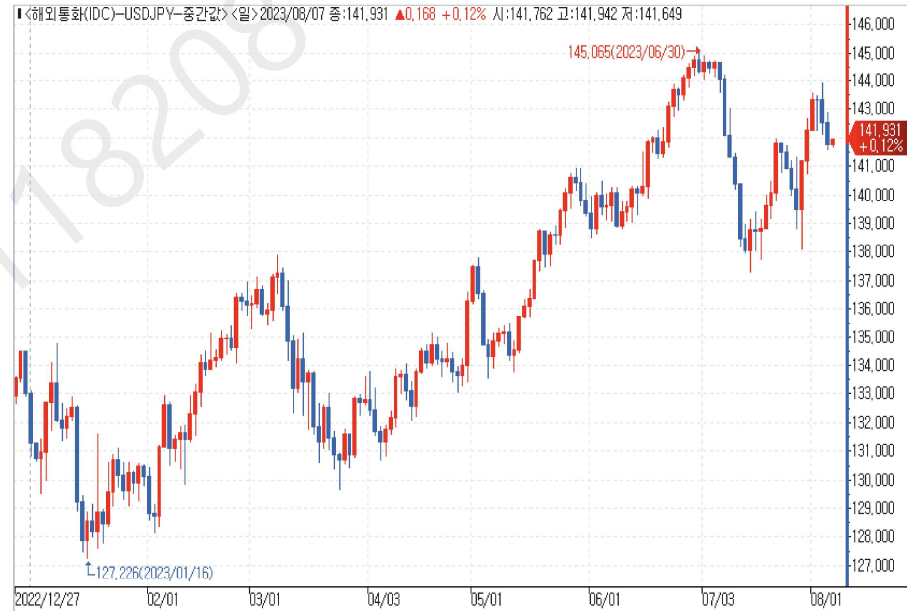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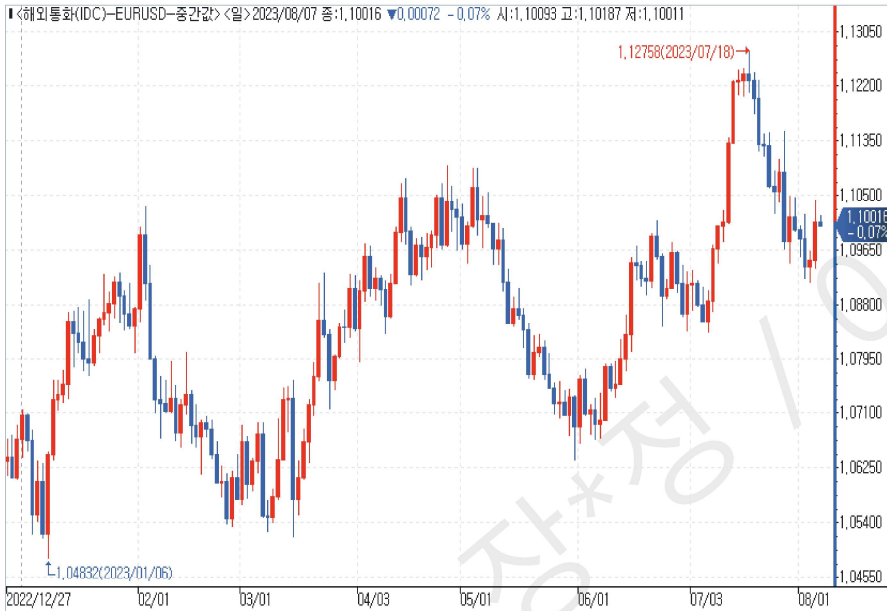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77.0	1,310.2	1,269.5	1,309.8	+32.8

## 예상거래범위

1,290원 ~ 1,310원



# 엔·유로화 동향 [7/31~8/4]



##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7월 CPI 전년대비 5.3%로 둔화 조짐 이어진 가운데 2분기 GDP 0.3%로 반등했음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감 지속되며 약세 출발 이어, 7월 제조업 PMI도 50선 하회하며 위축세 보임에 따라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피치의 미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위험선호 심리 위축된 영향 반영하며 약세
- 후반 들어, 유로존 7월 서비스업 PMI 둔화 등 경제지표 부진에도 바킨 리치 먼드 연은 총재의 연착륙 가능성 관련 비둘기 발언과 최근 유로 금락에 따른 매수 증가 영향 속 소폭 강세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둔화에 따른 약달러 흐름과 위험선호 심리 영향 속 강세 흐름 이어지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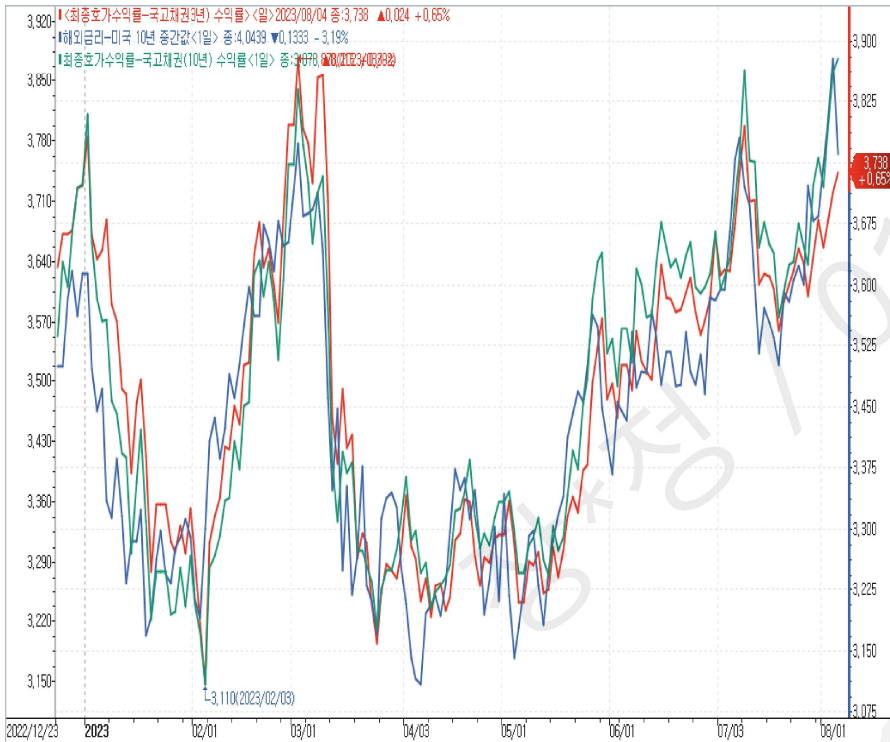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017	1.1046	1.0912	1.1009	-0.0008

## 엔화 동향

- 주초, BOJ의 YCC 정책 유연화에도 마이너스 정책 금리 유지와 국채 임시 매입 오퍼레이션 영향 등이 엔화 약세 견인하며 출발. 이어 BOJ의 현 초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전망이 재차 강화됨에 따라 약세 지속
- 중반 들어, 미 신용등급 강등이 안전자산 수요 자극하며 엔화 강세로 전환했으나 우에다 BOJ 총재가 YCC 정책 수정의 목적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에 있음을 강조한 점이 하단 제한하며 소폭 강세
- 후반 들어, BOJ의 임시 국채 매입 영향 진정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지속되며 강세 지속. 이어 미 7월 고용지표 둔화로 연준 동결 기대감 강화된 점에서 달러가 약세 전환하면서 강세 흐름 속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1.2	143.9	140.7	141.8	+0.6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7/31~8/4)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PCE 가격지수 전년동기 대비 4.1% 상승에 크치며 둔화 국면 이어 가면서 미국채 금리 하락 반영해 국고채 금리도 하락 출발 후, 수급 측면 30년 물 입찰 소화 과정에서 상승 흐름 전환. 이어 호주 금리 동결 영향 등이 국고채 시장 강세 재료로 반영하며 금리 하락 전환 속 고용지표 대기하며 관망세 형성
- 중반 들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매도 강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 재무부 국채 입찰 규모 증가 소식 속에 수급 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 추세를 추종하며 국고채 금리도 상승 추세 지속 후, 후반, 미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관망 심리 확대 속에 소폭 상승 마감 시현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국 6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세 둔화 속에 연준의 막바지 긴축 기대감 반영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뉴욕 금융시장 상장기업 실적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 영향이 반영된가운데 업종 솔림 심화 현상 완화 등으로 상승 지속
- 중반 들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2% 가까이 큰 폭 하락 전환
- 후반 들어서도 전일의 미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 속에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 집중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진 양상. 주 후반 들어 7월 미 비농업 고용 지표 등에 대한 관망세 속에서도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이 코스피 하방 압력을 강화하며 하락 마감